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내용 공개
- [6차] 극장 일반 관객 그룹 -**

□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 시 : 2019.2.26.(화) 15:00~17:00
- 장 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3F)
- 참석자 : 총 11인(일반 관객 패널 6인, 예술위 5인)

구분	성 명	나 이	비 고
극장 일반 관객 패널 6인 (가나다순)	김빛나	35	매니아회원, '17-'18년 공연 관람 29회
	김성문	63	매니아회원, '17-'18년 공연 관람 47회
	류주현	46	매니아회원, '18년 기획공연 5회 이상 관람
	배서현	19	'18년 공연 관람 10회
	전경인	49	'18년 공연 관람 17회
	최샘이	33	매니아회원, '17-'18년 공연 관람 33회
내부 5인	장계환 극장운영부 부장, 진용남 무대예술부 부장 외 극장운영부 직원 3명		

□ 주요 논의 사항

-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현장 논의 내용

※ 발언자 표기는 편의상 '패널(일반 관객 패널)'과 '진행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일반현황 소개. 2018-19년도 사업예산 및 기획 사업, 대관 현황, 극장별 공연 실적 등 공유 후 논의 주제 설명

[안건1]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진행자: 아르코예술극장이 곧 40주년을 맞는다. 대학로라는 공간 안에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오늘은 우리 극장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찾아주시는 관객 분들이 모였다. 앞으로 극장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관객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패널: 공연을 고를 때 기준은 아무래도 작품성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작품들은 대부분 괜찮다. 특히 소극장 쪽 작품이 좋다. 저는 연극 위주로 보는 편인데, 가끔 무용을 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무용 공연은 주로 예술의전당을 갔는데 이제는 여기도 자주 온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는 발레하기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무용수들이 예쁘게 보이는 것 같다. 극장은 좋은데 다만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좀 있다.

패널: 연극은 잘 안보지만 SPAF 연극 작품은 꼭 챙겨본다. 지난해 BEST&FIRST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보이긴 했지만 올해 역시 기대하고 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특별한 공간이다. 여기만의 브랜드를 살릴 만한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올라가면 좋겠다.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작품들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는 인식은 충분하다. 다만 고급스러움이 같이 가면 좋겠다. 오래된 역사 때문에 극장이 낙후됐다는 이미지 말고, 역사만큼 가치가 쌓여 작품도 빛나고 관객들도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이나 대학로 다른 소극장이나 똑같다면 무슨 차이인가.

패널: 아르코예술극장 만큼은 창작 작품을 지속적으로 올려 신진 예술가들을 육성시키는 공간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완전 성숙된 작품이 아니더라도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로서 관객들도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극장이 되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다른 극장들과 비할 수 없는 아르코예술극장만의

고유영역이자 힘이다.

진행자: 대학로 안에서 다른 소극장들과 어떻게 연계할지도 고민 중이다. 대학로 다른 소극장들에서 했던 좋은 작품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패널: 호불호가 분명 있을 것 같다. 선정을 정말 잘해야 한다. 소극장 유명 공연들은 팬클럽이 자리한 경우도 많아 관객몰이를 해버리면 소용없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창작산실이나 신춘문에 단막극전과 같은 작품들 때문에 여기를 많이 찾는다.

패널: 초연작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트렌드만 쫓아가는 관객들은 사실 이 극장에 관심 없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든 편견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연작이나 실험작을 주로 올리는 극장으로 특화된 이미지를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패널: SPAF는 세계 공연 트렌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창작산실이나 신춘문에 단막극전을 통해서도 올해 주목할 작품들에 대한 참고가 된다. 아마도 많은 관객들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하는 역할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볼륨 자체가 다른 극장인데 굳이 대학로 타 소극장들의 작품 유치에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패널: 아르코예술극장은 역사적으로도 대중적인 신뢰를 가진 곳이다. 대학로에 소극장들 많지만 아르코예술극장에 가면 다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예술성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극장이란 생각인데, 대학로 타 소극장들 공연을 어떻게 소화하려는지 모르겠다. 해야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잡아 객관화할 필요도 있을 거다.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소극장들 간의 괜한 경쟁적 심리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패널: 이미 서울연극제나 SPAF에도 재현 작품들이 많은데 굳이 다른 소극장들 작품을 재현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 극장 대관 일수도 부족하지 않은가.

진행자: 창작품도 좋지만 레퍼토리화에 대한 요구도 늘 있어왔다. 이런 저런 방향들에 대해 관객의 생각이 궁금했다.

패널: 개인적으로 창작산실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 때문에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다. 특히 무용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대부분 적다. 실험적인 작품인 만큼 청소년 관객층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극장 측의 노력도 더해지면 좋겠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데 좋은 작품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 너무 아깝다. 대표적인 공연들을 묶어 청소년 관객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면 좋겠다.

패널: 홍보 플랫폼이 약한 게 이 극장의 단점이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올려도 홍보

채널이 약하면 관객들은 채워지지 않는다. 매니아회원을 비롯하여 회원 관리 측면에서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의 역량을 더 쌓아갈 필요가 있다.

진행자: 극장으로서의 역할 중 큰 부분이 바로 마케팅과 회원관리다. 단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니 극장에서도 늘 신경 쓰고 있다.

패널: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관객 리포터로 두 번 참여했고 그런 과정에 매우 만족했다. 관객 리포터 제도도 꾸준히 지속되면 좋겠다. 매니아회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계속 관리된다면 그런 것들이 점점 반영되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관객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잘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건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진행자: 극장장과 예술감독의 겸임, 예술감독제, 운영위원회 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거쳐보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관객 분들의 입장에서 의견이 궁금하다.

패널: 기술감독은 이해가 가는데 예술감독은 의문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전속단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과연 예술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모르겠다. BEST&FIRST 같은 기획공연의 질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다.

진행자: 예술감독제를 운영하면 극장 색깔을 좀 더 명확히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1인 체제 하에서 생기는 내부적인 고민들도 있다. 극장장이나 예술감독의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어려운 문제다.

패널: 예술감독은 작품에만 집중해야지 극장의 운영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역할은 너무 비대한 것 같다.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예술감독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패널: SPAF, 창작산실, 여러 축제 등 이미 극장의 색깔을 주는 장기 공연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술감독의 역할도 모호하고, 잘못하면 아작 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1인 체제도 위험할뿐더러, 굳이 어떤 프레임이나 색깔을 일부러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극장장이라면 경영 쇄신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술감독제는 반대하고 싶다.

패널: 예술감독은 작품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자리이지, 국립극장 극장장처럼 권위 있는 자리는 아니다.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기획보다는 대관이 더 많다. 기획이 많다면 LG아트센터나 국립극단처럼 선택해서 끌어갈 수 있지만, 여기의 경우는 그럴 필요 없지 않은가. 괜한 예산 낭비다.

패널: 전속단체라도 있다면 예술감독이 있는 게 맞는데 아직은 역할 범위가 모호한 것 같다. 어찌됐든 무대기술 쪽과 극장경영 관련해서는 따로 전문가가 있어야 할 테고, 예술감독은 작품 쪽에 많이 치중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개입해서 가야할지가 애매하다. BEST&FIRST처럼 일부 기획공연 작품들의 예술성을 높일 수는 있겠다. 독단적이 될 우려가 있지만, 그동안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감히 독선체제로 갈 수 있을까.

[안건3]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패널: 항상 느끼지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작품들은 짧은 공연 기간에 비해 무대에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갔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로비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관객들을 위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씨어터카페도 너무 비싸다. 공연 전 대기할 공간도 부족한데 카페 이용에도 부담을 느낀다.

패널: 아르코예술극장 2층에 의자를 일부 배치해 공간을 활용한 건 좋아 보인다. 아르코예술극장이 김수근 선생님 작품이라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건 알지만, 업사이클링 차원에서 조금씩은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봐도 좋지 않을까. 약간만 손을 대줘도 느낌이 달라진다. 밤에 야외 조명을 조금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예쁘게 보이지 않나. 극장이 공간 디자인적으로도 발전해가면 좋겠다.

패널: 건물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안다. 하지만 굳이 건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솔직히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 들어오면 입구부터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 작은 카페라도 있을 때는 몇 개 안되는 테이블이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으니 더 삭막한 분위기다. 로비가 딱 찰 때는 오로지 공연 직전 티켓팅 할 때뿐인 것 같다. 극장에서 운영하든 외주업체에서 운영하든 관객 입장에서는 상관없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저 극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스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패널: 봄, 여름, 가을에는 그나마 마로니에공원에도 나가고 해서 극장 로비 공간을 신경 덜 쓸 수 있지만, 겨울에는 정말 아르코예술극장이 더 차갑고 삭막해

보인다. 대학로 다른 극장을 찾는 관객들도 공연 전 대기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 방문할 수 있는데, 이 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또한 큰 홍보 역할이 되지 않을까. 굳이 공연이 아니어도 공간이 좋으면 찾아올 수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로비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따스해질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대학로예술극장 1층의 씨어터카페도 가격을 좀 내리든가 음료 강매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패널: 씨어터카페 운영시간도 연장하면 좋겠다. 저녁 공연은 밤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카페는 10시에 마감한다. 잠깐 대기를 위해 앉아있을 때도 음료 주문에 대한 압박이 있어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관객들을 위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운영될 수는 없을까.

패널: 소극장 공연들 너무 좋은데 좌석이 영 불편하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의 경우 시야제한석은 아주 별로다.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야가 결코 아니다. 근데 판매가 되고 있으니 극장의 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소극장 좌석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하지만, 최근 만석 공연이 많아지며 시야제한석까지 짹짹 차다보니 의문이 들었다. 작품을 위해서든 극장의 수준을 위해서든 시야제한석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널: 좌석의 편안함은 정말 중요하다. 좌석이 불편하면 두 번 보고 싶은 거 그냥 한 번 보게 된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어떤 좌석은 등받이가 계속 뒤로 넘어간 적도 있어 작품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진행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좌석 수를 늘리면서 2015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전히 몇몇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 같다. 다시 작업할 수 있을 여건이 될 때 그 부분들을 꼭 챙겨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패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의 단차 문제도 있다. 무용 공연은 주로 바닥에서 이뤄지는데 단차 때문에 2열에서 무대 바닥은 거의 안 보인다.

패널: 그래도 “단차가 없어 시야제한이 있을 수 있다” 는 걸 티켓 판매 시 미리 공지해준 건 좋았다. 안 좋은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지하면 관객들도 감안해서 본다. 명동예술극장의 경우 단차 있는 2열을 S석으로 빼기도 한다.

패널: R석, S석, A석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관례를 지켜온 것 같다.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공연 관계자들이 관객 입장에서 직접 자리에 앉아보고 시야제한석 등 좌석을 구분지어주면 좋겠다. 관객석이 모두 차있을 때 직접 들어가서 객석에 앉아보는지 궁금하다. 관객석이 비어있을 때 앉아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패널: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관객 입장에선 무대를 향한 내 시야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올려도 소용없다.

- 패널:** 티켓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을까. 크기라도 줄이면 좋겠다.
- 패널:** 크기는 괜찮은데 티켓 봉투는 안주면 좋겠다. 공연 티켓과 세트인 전용 디자인이면 모를까 괜한 종이 낭비다. 아니면 수거함을 놓고 재활용하면 어떨까.
- 패널:** 티켓 브랜딩을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티켓은 인터파크 같은 곳과는 다른 품격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갖췄으면 한다. 어두운 색깔도 몇 년째 안 바뀌고 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찾아온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티켓 브랜딩 디자인의 품격을 높여주면 좋겠다.
- 패널:** 충성 관객들은 티켓 욕심이 있다. 같은 공연도 예매처마다 디자인이 다르니, 가끔은 극장 홈페이지 말고 더 예쁜 디자인의 티켓을 주는 타 예매처를 이용할 때도 있다. 환경정책에 따른 모바일 티켓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객들은 아날로그식 종이 티켓을 원한다. 개인적으로 1995년도 티켓부터 모두 소장하고 있다.
- 패널:** 저도 영화 티켓이 모바일이나 영수증 형태로 발급된 뒤부터 서서히 공연 쪽으로 넘어왔다. 아무리 영화를 봐도 티켓이 안 남으니 시간이 지나면 기록과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다.
- 패널:** 10년 넘게 아르코예술극장을 찾는 관객으로서 개인적으로 섭섭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싶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공연이 있었는데, 직장이 멀어 바쁘게 오다 보니 몇 분 늦어졌다. 2개 작품이 한 공연으로 올라가는 터라 첫 번째 작품을 놓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 두 번째 작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들여보내주지 않아 로비에 있는 작은 모니터로 볼 수밖에 없어 많이 섭섭했다. 하우스에서도 관객을 위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줄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대개 막간 타임에 지각한 관객들을 들여보내주곤 한다. 그런데 아마 그 공연에서는 작품 연출 의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경우 연출가가 하우스 쪽에 공연 시작 후 관객입장을 시키지 말아 달라 미리 전달하기도 한다.
-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하우스 분들 정말 고생하는 거 느껴지긴 한다. 공연 때마다 보면 가끔 당황하는 빛이 역력해 보이는데, 아마도 순환 사이클이 빠른 건지 다른 극장들보다 연령대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 패널:** 매니아회원 관리에도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필요 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사전연락 없이 무조건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보내는 것도 어찌면 낭비 아닐까. 심지어 다이어리도 1월이 아닌 2월에 받게 되니 더욱이 필요가 없어졌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비용은 줄여야 한다. 모두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편견이다.
- 패널:** 매니아회원이라면 원하는 게 뭔지 사전 조사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캘린더나 다이어리보다는 공연 티켓 할인 쿠폰북 같은 게 차라리 실용적이다. 공연 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씨어터카페 음료권을 주는 것도 좋다.